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4.(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4일(금)부터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홍보기획팀	담당자	김재덕 팀장(044-300-7241)
			이희준 주무관(044-300-7006)

세종시의의원 5명,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 안신일 의장 등 참여, 범국민대책위 릴레이 시위에 힘 보태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의장 안신일)는 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신일 의장,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 김동빈 의원, 김창연 의원, 정연희 의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에 세종시의의회가 힘을 보탠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릴레이 시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참석 의원들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국회를 오가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안신일 의장은 "어제(3일) 발표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

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완성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회는 여야를 떠나 연내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 피켓 시위, 대 국민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